

레버리지에 흔들리는 韓 증시… F4 중심 제도보완 가시화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단일종목 상품, 시장 변동성 키워
李 대통령, 보완대책 마련 지시
금투업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코스피의 격렬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건 단 2개 주식,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들 종목의 주가 급등락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매도를 결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으로 한층 심화됐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 한국증시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다.

정부가 오징어게임 같은 한국 증시를 진정시킬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시장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라는 ‘꼬리’가 증시라는 ‘몸통’을 뒤흔드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폐지 요구까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이 기초자산 하루 등락률의 2배로 움직이므로 걸린 돈의 크기를 매일 원금의 2배로 맞춰놓아야 한다. 이때 적은 증거금으로 많이 살 수 있는 선물이 쓰인다. 주가가 오른 날은 늘어난 원금에 맞춰 걸린 돈의 크기를 더 키우고, 내린 날은 줄어든 원금에 맞춰 더 줄여놓아야 한다. 결국 증시 변동성만 한 방향으로 더 키우는 꼴이 된다.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가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올해 44일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직전까지 96거래일

동안 26일이었고, 출시일 이후 8일까지 30거래일 동안에는 18일이었다. 해당 기간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시 전 27%에서 출시 후 50%대로 두 배 경증 났었다. 그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3% 이상 급등락한 날이 더 잦았다는 뜻이다.

외국계 투자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공개한 ‘최근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해외 시각’ 보고서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13일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한 것을 두고 “반도체 섹터의 실적 악화 등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

이 강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 쏠림을 심화시키고 일일 리밸런싱과 현·선물 차익거래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 조정 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뿐 아니라 환매 증가와 포지션 재조정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해법 찾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 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운용사에서 내놓은 해당 상품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넘나들고 있어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상장폐지하면 상품에 담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과 선물을 한꺼번에 팔아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투자자들의 상장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

어서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

대안으로는 교육 강화와 기본예탁금 상향이 거론된다. 현재 1000만원인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으로 올려 감내 가능한 투자자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맞춤형 위험경고 강화,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일일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며 “각사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당국,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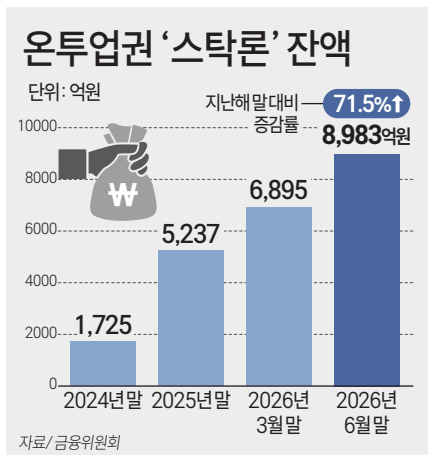
(주식담보대출)

업자, 신규 취급액 30% 이내 관리
차주 1인당 잔액 최대 10억 제한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서 빠르게 불어난 스탭론(주식담보대출)에 제동을 건다. 특정 상품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온투업권의 스탭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탭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이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안

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온투업권을 중심으로 스탭론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탭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지난해 말(5237억원)보다 3745억원(71.5%) 증가했다. 증가 폭만 보면 2024년 1407억원, 2025년 3513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이를 뛰어넘으며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새 관리 방안의 핵심은 스탭론 취급 비중과 차주별 대출 한도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온투업자는 매월 신규 스탭론 취급액을 직전월 전체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탭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해당 기준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주 1인당 스탭론 잔액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투자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온투업체의 스탭론 편중 영업을 완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대규모 반대매매나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온투업체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실시

기초연구 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기여
금융업계 종사자·대학생·연구원 등 지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제도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도 연구비 지원과 우수논문 시상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증권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본

시장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을 비롯해 금융업계 종사자, 연구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기타 금융전문가 등이다.

거래소는 공모를 통해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논문에는 별도의 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우수논문상은 제출된 논문 가운데 최우수상 1편에 7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500만원, 장려상 2편에 각 300만원의 상금을 수

여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연구과제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비 지원은 최대 11편의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구 과제는 거래소가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과제로 나뉜다.

올해 지정과제는 ▲ETF 시장 고빈도 거래자의 과다회가와 유동성 공급 실태 ▲탄소크레딧 인증·등록 인프라 구축 ▲국내 미국달러선물옵션 도입 활용 방안

▲증권시장 위험액 측정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 등이다. 자유과제는 대체거래소(ATS)·다자간거래시설(MTF) 등 시장구조 개선, 증권파생상품 및 파생 관련 복합상품 발전 관련 사항,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불공정거래 감시 등 자본시장 전반을 주제로 한다.

선정된 연구가 주요 학술지 게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과제는 편당 1000만원, 자유과제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투자 공모펀드 확대

알파셀렉션 출시… 상장주 중심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미래에셋알파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제간접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주요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롱온리(Long Only)’ 전략 비중을 높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롱숏(Long-Short)’ 전략 펀드를 함께 편입해 운용한다.

이번 출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안정형과 공격형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

기존 미래에셋 헤지펀드셀렉션 혼합자산’은 이벤트드리븐, 채권, 메지닌, 멀티전략 등 다양한 전략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이다. 반면 새롭게 선보인 알파셀렉션’은 상장주식 중심 투자 비중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는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3억원 제한 없이 소액으로 우수 사모펀드 운용 전략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정부가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인 ‘미래에셋 헤지펀드셀렉션 혼합자산’을 출시해 운용해왔다. 해당 펀드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99.75%를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약 4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허정윤 기자